

도심속 숲체험하며 코로나 잊어요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

사직공원·시민의 숲 2곳

유아숲체험원 운영

4월 개장 이후 2102명 찾아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에 제약을 받아 온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소장 정주형) “도심에서 아이들이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사직공원과 시민의 숲(어린이 교통공원 주변) 2곳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자연과 교감을 통해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자연 체험 위주의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간이다.

체험원은 우선 시 대피 공간, 유아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공간, 흙놀이, 밭종·나무를 활용한 놀이 등 다양한 체험, 숲에 있는 동·식물을 관찰하는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숲 활동은 유아들에게 면역력 증진과 운동감각을 높여주고 비만을 예방해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효과 등이 있다. 특히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가 운영중인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한 아이들이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참여 신청이 줄을 이고 있다.

지난 4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122개팀 2102명이 유아숲 체험을 했고, 이번 달에도 58팀이 예약 접수했다. 유아숲체험 참여를 희망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메아리숲생태연구소(062-375-1729)로 문의 하면 된다.

유아숲체험원은 푸른도시사업소가 직여하는 2곳을 포함해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곳까지 총

1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완공 예정인 광주 시립수목원 인접 산림청 부지에도 유아숲체험원 1곳이 추가 조성된다.

박남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유아숲체험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해외바이어 비대면 수출상담회

태국·터키 등 7개국 화상상담

7월8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광주시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해외바이어 온라인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7월 8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는 매년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오던 대면 수출상담회를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는 7개국 30개사 바이어와 우리지역 4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사전에 선호도 조사를 통해 바이어가 국내기업을 선택하는 인바운드 방식(8월 23일 ~ 9월 3일)과 광주지역 우수기업 10개 업체가 바이어를 선택하는 아웃바운드

방식(9월 27일 ~ 10월 8일)의 1대 1 맞춤형 상담회로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로 광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모집 분야는 뷰티, 식품, 생활용품, 자동차, 전자·기계, 광학·의료기기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지난해 중국, 동유럽 등 해외바이어 온라인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3258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손환환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돼 아쉬움이 있지만,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이 높아져 실제로 만나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소방, 여름철 의사사고 대비 수상 인명구조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7일 장성 함동저수지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등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훈련을 했다.

광주시, 정보통신공사업체 현장 행정지도

등록증 대여·기술능력 등 확인

광주시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합동으로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이행여부 및 운영현황 ▲정보통신공사사업 등록증 대여 및 기술능력 확인 ▲하도급의 적정 및 불법 하도급, 성실시공 여부 ▲정보통신공사사업 속지와 의무사항 홍보 ▲업체 운영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의견 청취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연기 및 중단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 업체 50곳에 대해서는 적발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 보호 및 지원도 병행한다.

행정지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업체 방문을 최소화하고, 서류 및 유선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운영이 힘든 지역 업체에 대해서 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예방 및 관련법 준수 안내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공사사업 운영 업체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과제 도출하고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발전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상용 시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행정지도는 위반사항 적발보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주지역 정보통신공사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전남도·대학·기업과 손잡고 에너지 산업 이끌 인재 양성 나선다

산업부 공모 선정...85억 투입

5년간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광주시가 전남도, 대학, 기업과 함께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인 에너지를 이끌어 인재 양성에 나선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산업부가 공모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돼 전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사업 주관은 맡은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전남도, 전남대·조선대·동신대·목포대·순천대 등 5개 대학, 한국전력·남부솔루션 등 21개 기업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 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은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5년간 85억5000만원(국비 47억5000만원, 시도비 23억8000만원, 민자 14억2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산·학·연 인프라에 기반한 교과과정,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지역기업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성한 인재를 연계 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시는 이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석·박사급 인재를 제공하고, 기업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네트워크 고도화, 에너지 산학 공동프로젝트 기획, 기업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주관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는 기업 R&D 사전기획, 시제품제작, 디자인설계, 홍보물 제작 지원 및 취업지원협의회 구성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5개 대학은 지역에너지산업 수용에 부합하는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 및 졸업생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은 석·박사 졸업생 인턴십 연계 지원과 취업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교과과정은 광주·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중점적으로 육성할 분야인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등이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산업부가 2019년 11월15일 전국 최초로 광주시를 지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광주시 운영 보조사업자 공모

광주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을 수행할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총사업비 2000만원이 지원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 참여한 349명의 은둔형 외톨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내용은 ▲사전 욕구조사 ▲소통, 정보교환 등 심리안정 지원위한 ‘부모자조모임’ ▲방문 상담 및 개별 지원 프로그램 ▲공공·유관기관, 지역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공모 자격은 관련 사업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면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가할 법인·단체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보조사업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29일부터 30일(오후 6시)까지 광주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사업자 자격 적합성, 수행능력, 사업 추진실적, 프로그램 구성 및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면접심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며, 오는 7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올해는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집니다

▶ 시행사, 대표 김양덕

▶ H. 010-2928-0202

지리산, 시세 30억, 토지

▶ 임야 / 전 / 답 등 16,513㎡(구 5,000P), 계획관리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대출 18억 6,000만원 승계 가능자

문의 . 010-3605-5000